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ww.inss.re.kr

March 2026
No. 374

INSS 전략보고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임수호
shlim@inss.re.kr

Ⅰ. 서론
Ⅱ. 파병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Ⅲ. 군수물자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Ⅳ. 종합적 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March 2026
No. 374

CONTENTS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I. 서론

II. 파병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1. 파병군의 규모
2. 급여 및 수당
3. 추정의 결과

III. 군수물자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1. 추정의 근거와 방법
2. 추정의 결과

IV. 종합적 논의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저자 | 임수호

국문 초록

이 글은 '23.8~'25.12 기간 북한이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로 번 외화규모를 추정했다. 추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례 파병으로 획득한 외화는 총 6.2억 달러로 추정된다. 둘째, 각종 포 · 포탄과 유도 · 탄도미사일 수출로 번 외화는 총 70.5억~137.8억 달러(평균 104억 달러)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同 기간 대러 파병과 군수물자 수출의 수익은 총 76.7억~144억 달러(평균 110.3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중 북한이 현물 형태로 회수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약 4.0%~19.6%(평균 9.4%) 수준인 5.8억~15억 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파병 · 무기수출의 대가 대부분(80~96%)은 위성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관련 정밀부품 · 소재 등으로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同 파병 · 수출 수익을 제외할 경우, 2025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16년 말 대비 약 33.5억 달러 감소한 72.5억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同 수익을 모두 포함할 경우, 52억~125.6억 달러 증가한 158억~231.6억 달러(평균 198억 달러)로 추산된다.

주제어: 파병, 군수물자 수출, 외화수지, 제재의 경제적 효과

Ⅰ 서론

▪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경과

- 파병은 2024년 10월, 2025년 1월, 2025년 8월, 2025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실시
- 군수물자 수출은 쇼이구 국방장관 방북(2023.7) 이후 김정은-푸틴 정상회담(2023.9) 직전에 시작되어 2026년 2월 현재도 지속

▪ 同 파병 · 수출은 제재(2017~현재) 및 팬데믹(2020~2022)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기제로 작용

- 同 파병 · 수출로 1년 6개월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7조 원(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존재[1]
  ※ 연간 수익으로 환산 시 GDP(2024년 기준)의 38.8%에 해당
- 202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 2017~2022년 마이너스 성장폭이 가장 컸던 광업 및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가장 큰 폭의 플러스 성장세 기록

▪ 이 글은 2023년 8월부터[2] 2025년 12월까지 외화획득 규모를 중심으로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추정

- 북한이 同 파병 · 수출로 획득한 직접 수익은 한국이 베트남전 파병으로 얻은 직접 파견경비(전투수당) 및 전쟁특수에 각각 해당
- 당시 한국은 원조 · 차관 · 기술이전으로 직접 경제효과 대비 4배 이상의 간접 경제효과를 획득, 경제구조 개편(중화학공업화) 등 도약 발판 마련
- 반면, 북한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경제효과와 경제구조 개편 효과를 추론하기 곤란[3]

1 박용한, "러 · 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KIDA 안보전략 FOCUS〉 제21호(2025).

2 대규모 군수물자 수출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9월이지만, 이미 8월부터 러시아 국적 화물선들이 나진항 등에서 군수물자 선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 MSMT,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29, 2025), p.8; OSC, *Brothers in Arms: Estimating North Korean Munitions Deliveries To Russia* (April 15, 2025), p.6.

3 이에 대한 시론적 분석은 다음을 참조. 임수호,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INSS 이슈브리프〉 제627호 (2024).

▪ 이 글에서 말하는 '직접 수익' 혹은 '외화획득'이 '경화(hard currency) 획득'과 같은 의미는 아님에 유의

- 북한은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 대가로 일부 경화도 얻었지만, 주로 군사기술 및 장비, 원자재, 기타 생필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북한의 외화 수익은 파병 및 수출된 군수물자의 가치를 달러화로 환산한 것에 불과
- 관련 상세한 논의는 Ⅳ장 참조

Ⅱ 파병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1. 파병군의 규모[4]

▪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약 21,000명을 러시아에 파병

- 1차(2024.10~11): 전투병 10,000명, 전투공병(지뢰 제거 등) 1,000명, 총 11,000명 (쿠르스크 전선 투입)
- 2차(2025.1): 포병 및 관련 기술자 4,000명 (쿠르스크 전선 투입)
- 3차(2025.8): 전투공병 1,000명 (쿠르스크 전선 투입)

※ 북러 합의(2025.6)에 따른 6,000명 추가 파병 계획 중 일부

- 4차(2025.9~12): 건설공병 (후방 점령지 재건) 5,000명

※ 북러 합의(2025.6)에 따른 6,000명 추가 파병 계획 중 나머지

※ 9월부터 순차 파병되어 2025년 말까지 파병 완료된 것으로 추정

▪ 2025년 12월 현재 약 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100명은 귀환

- 전사자는 2025년 4월 기준 총 600명, 9월 기준 총 2,000명이지만, 이후에도 사망자 지속 발생 추정 ('25.9 이후 소모전 지속)
- 2025년 12월 3차 파병 전투공병 1,000명 포함 총 1,100명 귀환

4 파병 규모는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미국 및 우크라이나 당국 보고내용도 참조. 군인(전투병, 포병 및 관련 기술자, 전투공병, 건설공병) 외 2024년 이후 파견된 일반 건설노동자는 제외. 국정원 등 보고내용은 다음 기사들을 참조하여 재구성. 이민영,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 〈서울신문〉(2024.11.13); 박희영, "국정원 '북한, 7~8월 러시아에 추가 파병 가능성'," 〈노컷뉴스〉(2025.6.26); 유주희,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 〈서울경제〉(2025.9.3); 하채림, "총알받이 내몰린 1만 5천명," 〈연합뉴스〉(2025.10.4); 이석훈, "국정원 '北건설부대 5000명 러 이동 중'," 〈뉴스핌〉(2025.11.4); 이제훈, "김정은 '120일이 10년 같았다'," 〈한겨레신문〉(2025.12.13); 김채운,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한겨레신문〉(2026.2.13); Polina Moroziuk, "Nearly 11,000 North Korean troops stationed in Russia's Kursk Oblast at start of 2026, media reports," *The Kyiv Independent* (February 13, 2026); Sania Kozatskyi, "South Korean Intelligence: North Korea Sends Another 5,000 Troops to Russia," *Militarnyi* (November 5, 2025).

▪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월별 주둔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산

- 2025년 1~4월 150명/월, 2025년 5~12월 350명/월 전사 가정

※ '25.4월 기준 전사자(600명) 월 균등 차감, '25.5~8월 전사자(1,400명) 월 균등 차감 및 '25.9~12월도 동일 규모 전사자 가정

- 추산 결과 현 쿠르스크 전선 주둔군은 10,500명으로서, 정보 당국 추정 규모(11,000명)와 사실상 동일

〈표 1〉 러시아 내 북한군 월별 주둔 현황 추정

단위: 명

	전선	전사	잔존	후방	비고
2024.10	11,000	0	11,000	0	-1차 파병(11,000명) -극동 훈련 후 쿠르스크 전선 투입
2024.11	11,000	0	11,000	0	
2024.12	11,000	0	11,000	0	
2025.1	15,000	150	14,850	0	-2차 파병(4,000명) -2025.4월 현재 총 600명 사망 -4개월 균등 차감
2025.2	15,000	150	14,700	0	
2025.3	15,000	150	14,550	0	
2025.4	15,000	150	14,400	0	
2025.5	15,000	350	14,050	0	-2025.8월 현재 총 2,000명 사망 -1,400명(2000명-600명) 4개월 균등 차감 -2025.8월 3차 파병(1,000명)
2025.6	15,000	350	13,700	0	
2025.7	15,000	350	13,350	0	
2025.8	16,000	350	13,000	0	
2025.9	16,000	350	12,650	1,250	-2025.9월부터 매월 동일 규모 전사 가정 -2025.9~12월 4차 파병(후방. 건설공병) (5,000명 매월 순차 파병 가정) -12월 전선에서 1,100명 귀환
2025.10	16,000	350	12,300	2,500	
2025.11	16,000	350	11,950	3,750	
2025.12	14,900	350	10,500	5,000	

2. 급여 및 수당

▪ 북한 전투병의 급여 및 수당 지급방식 관련 두 가지 추정이 존재하나 이 글에서는 차등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추정

- (균등 지급방식) 월급 2,000~2,300달러(평균 2,150달러) 및 일회성 수당 2,000달러[5] ('24.10~'25.12 기간 총 5.08억 달러)
- (차등 지급방식) 직급별 차등 월급 및 사망 보상금 지급[6] ('24.10~'25.12 기간 총 5.85억 달러)
  ※ 지휘관(전체의 2%) 5,000달러, 기술자(8%) 3,500달러, 하사관(10%) 3,000달러, 일반병사(80%) 2,800달러
  ※ 사망 보상금: 인당 6,000~10,000달러 (직급별 차등 추정)
- 지급방식에 따라 누적 기준 약 0.8억 달러 차이

▪ 건설공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체로 전선에 투입된 일반병사와 같은 수준으로 추정 가능

- 러시아는 북한 건설 노동자를 관리하는 무역회사에 인당 최대 3,000달러/월 정도를 지급[7]
- 이는 쿠르스크에 투입된 일반 병사 급여(2,800달러/월)와 유사한 수준
- 이하에서는 일반 병사 급여 기준으로 추정

3. 추정의 결과

▪ 15개월간('24.10~'25.12) 파병 직접 수익은 총 6.2억 달러로 추산

- 쿠르스크 전선 투입에 따른 수익: 5.85억 달러
  ※ 급여 5.6억 달러, 사망 수당 0.2억 달러
- 후방 점령지역 건설공병 수익: 0.35억 달러

▪ 2025년 12월 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2026년부터 매년 파병으로만 5.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

- 전선 인원 10,500명, 월 사망자 350명, 후방 건설공병 5,000명 기준(〈표 1〉 참조)

5 김태준 · 김동현, "국정원 '北 러시아 파병 대가는 1인당 月 2000달러 수준'," 〈조선일보〉(2024.10.24); 정승임, "'총알받이' 러시아 용병 월급 276만원," 〈한국일보〉(2024.10.23).

6 이상용, "北, 파병으로 月 4380만 달러 수익…사망 위로금까지 두둑히 챙겨," 〈데일리NK〉(2025.5.30).

7 장슬기, "해외서 5년 일한 대가가 고작…'현대판 노예' 北 노동자들," 〈데일리NK〉(2024.6.10).

〈표 2〉 대러 파병에 따른 월별 직접 수익 추정

단위: 백만 달러

	전투병 월급	전투병 사망수당	건설공병 월급	합계
2024.10	32.1	–	–	32.1
2024.11	32.1	–	–	32.1
2024.12	32.1	–	–	32.1
2025.1	43.4	1.0	–	44.3
2025.2	42.9	1.0	–	43.9
2025.3	42.5	1.0	–	43.4
2025.4	42.0	1.0	–	43.0
2025.5	41.0	2.2	–	43.2
2025.6	40.0	2.2	–	42.2
2025.7	39.0	2.2	–	41.2
2025.8	38.0	2.2	–	40.2
2025.9	36.9	2.2	3.5	42.7
2025.10	35.9	2.2	7.0	45.1
2025.11	34.9	2.2	10.5	47.6
2025.12	30.7	2.2	14.0	46.9
합계	563.6	21.6	35.0	620.1

* 비고: 전투병 월급 = (직급별 전선 잔존자 수 * 월급)의 합계, 전투병 사망수당 = (직급별 전사자 수 * 사망수당)의 합계, 건설공병 월급 = (후방 건설공병수 * 일반병사 월급)의 합계

Ⅲ 군수물자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 규모

1. 추정의 근거와 방법

▪ 파병 규모와 달리 수출된 군수물자의 제원과 제원별 수량에 대해서는 일치된 추정치가 부재

- 해상 · 철도 · 항공 3가지 루트로 운송되는데, 컨테이너 개수로 총수량을 짐작할 뿐, 제원별 수량은 단정이 곤란
- 한국 · 미국 정보 당국 역시 컨테이너 개수를 기초로 총수량만 추정해 발표할 뿐, 제원별 수량 정보는 미제공

▪ 현재까지 제원별 수량에 대해 정밀 추정치를 제시한 공개자료는 3개인데, 이 글은 가장 세부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FNF 자료를 활용

- OSC(Open Source Center): '23.8~'25.3 러시아 국적 화물선 4척 컨테이너 수량(15,809개) 기준으로 제원별 적재량 모델링. 152mm, 122mm 총포탄(artillery shell) 물량에 국한[8]
-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23.9~'24.12 회원국 정보 종합(20,000개 이상) 기준. 제원별 물량을 제시하나, 2025년 이후 수출구조 변화(재고품 위주→신규생산품 위주) 미반영[9]
  ※ 2025년 초까지는 수출물량 중 재고가 70%를 차지했으나, 이후 북한 내 재고 소진으로 신규 생산분이 대부분을 차지, 정점 대비 수출물량이 감소(단, 단가는 상승 추정)[10]
- FNF(Friedrich Naumann Foundation): '23.8~'25.3 러시아 선박 적재 컨테이너 수량(19,019~21,945개) 기준으로 OSC의 적재량 모델링 변형. 가장 상세한 추정치 제공[11]
  ※ 해상만이 아니라 철도 및 항공 운송 추정치도 제시한 것이 특징
- OSC 추정치는 선박 4척 위성 자료에 국한한 것으로 최소 추정치인 반면, FNF 추정치는 MSMT 추정 컨테이너 물량에 기반하여 세부 제원별 추정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가능
  ※ FNF와 MSMT 추정치는 컨테이너 개수만이 아니라 제원별 물량의 합계도 유사 (포탄 기준 740만~880만 발 對 최대 900만 발)

8 OSC, *Brothers in Arms*.

9 MSMT,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10 Friedrich Nauman Foundation, *Unequal Partnership: North Korea's Uneven Bargain with Russia* (September, 2025). p.18; Kateryna Hodunova, "North Korea halves shell shipments to Russia as its own stockpiles run low, Ukraine's intelligence says," *The Kyiv Independent* (November 15, 2025).

11 Friedrich Nauman Foundation, *Unequal Partnership*.

〈표 3〉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수출물량 (기관별 추정치, 범주별)

구분	FNF	OSC	MSMT
대상 기간	2023.8~2025.3	2023.8~2025.3	2023.9~2024.12
컨테이너	19,019~21,945개	최소 15,809개	20,000개 이상
총포탄류 (Artillery Shells)	570만~670만 발	420만~580만 발	최대 900만 발
방사포탄/로켓 (MRLA/Rockets)	649,640~878,300발	총포탄류 추정치에 혼재	총포탄류 추정치에 혼재
박격포탄 (Motar Rounds)	105만~124만 발	추정 제외	총포탄류 추정치에 혼재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248발	추정 제외	최소 100발
자주포/방사포 (Guns & SPGs)	479~794문	추정 제외	중화기 3개 여단 분량

▪ 제원별 단가 역시 FNF 추정치를 사용

- 상세 제원별 단가만이 아니라, 재고품과 신규생산품의 단가를 구분하여 제시한 유일한 자료

▪ 이 글에서는 FNF가 추정한 물량 및 단가에 기간을 연장하여 산정

- FNF는 '25.3월까지만 추정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정
- '25.3월까지 물량 중 재고물량 표시분을 제한 월평균 물량을 '25.4~12월 기간 일괄 적용

〈표 4〉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수출물량 · 단가 (FNF 추정치. '23.8~'25.3)

단위: 개, 달러

	품목	수량(하한)	수량(상한)	단가(하한)	단가(상한)
총포 및 포탄 (Artillery Systems and Rounds)	122mm D-30 (곡사포)	20	40	80,000	120,000
	122mm M-30 (곡사포)	50	150	50,000	80,000
	122mm D-74 (평사포)	10	30	80,000	120,000
	130mm M-46 (평사포)	30	50	100,000	160,000
	152mm D-20 (곡사포)	50	100	120,000	200,000
	170mm 곡산 (장사정 자주포)	120	120	6,300,000	6,300,000
	122mm (재고)	3,244,605	3,744,195	150	300
	122mm (신규)	1,390,545	1,604,655	174	348
	130mm (재고)	12,000	60,000	250	400
	152mm (재고)	745,427	860,205	300	500
	152mm (신규)	319,469	368,659	549	915
	170mm (재고)	60,000	108,000	500	800
방사포 및 포탄 (MLRS)	107mm 방사포 (견인형)	50	100	1,300	1,300
	240mm 방사포 (차량탑재형)	120	120	1,800,000	1,800,000
	107mm (고폭탄)	2,100	6,700	160	375
	107mm (집속탄)	900	2,880	200	500
	122mm (재고탄)	456,640	526,720	400	750
	240mm(비유도탄)	186,400	333,600	10,000	12,000
	240mm(유도탄)	3,600	8,400	20,000	35,000
박격포 및 포탄 (Mortars and Rounds)	60mm 박격포	15	50	800	1,100
	140mm 박격포	4	24	6,000	15,000
	60mm	3,000	20,000	24	48
	120mm	1,046,650	1,207,250	120	240
	140mm	1,600	14,000	180	360
대전차유도미사일 (ATGMs)	9M113 Konkurs (미사일)	100	500	15,000	20,000
	불새-4 ATGM (미사일)	300	500	42,000	42,000
	불새-4 launcher (발사대)	10	10	65,000	65,000
	불새-4 device (통제시스템)	2	2	35,000	35,000
탄도미사일	KN-23	248	248	3,000,000	3,000,000

2. 추정의 결과

- '23.8~'25.12 기간 북한이 러시아에 판매한 군수물자 총액은 약 70억 달러 ~ 137.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평균 104억 달러)
  - 재고 및 신제품 포함 각종 포탄이 45.2억~111.3억 달러(평균 78.2억 달러, 평균총액의 75.1%)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
  - 기타 각종 포 14.3억~15.1억 달러(평균 14.7억 달러, 14.1%), 단거리탄도미사일 10.8억~11억 달러(평균 10.9억 달러, 10.4%), 유도미사일체계 0.2억~0.5억 달러(평균 0.3억 달러, 0.3%) 순서

- '25년 4월부터 재고 소진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했으나, 신제품 비중 증가로 단가가 상승, 수출 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
  - '23.8~'25.3월 평균 3.6억 달러 → '25.4~'25.12월 평균 3.5억 달러

〈표 5〉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수출액 추정 ('23.8~'25.12)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	하한	상한	평균	비중
포	107mm 방사포(견인형)	0.1	0.2	0.1	0.0
	122mm D-30 곡사포	2.3	7.1	4.7	0.0
	122mm D-74 평사포	1.2	5.3	3.2	0.0
	122mm M-30 곡사포	3.6	17.7	10.7	0.1
	130mm M-46 평사포	4.4	11.8	8.1	0.1
	140mm 박격포	0.0	0.5	0.3	0.0
	152mm D-20 곡사포	8.7	29.5	19.1	0.2
	170mm 장사정포	1,096.2	1,114.1	1,105.2	10.6
	240mm 방사포 (차량탑재형)	313.2	318.3	315.8	3.0
	60mm 박격포	0.0	0.1	0.0	0.0
	소계	1,429.7	1,504.6	1,467.1	14.1

구분	품목	하한	상한	평균	비중
포탄	107mm 방사포 고폭탄	0.5	3.7	2.1	0.0
	107mm 방사포 집속탄	0.3	2.1	1.2	0.0
	120mm 박격포탄	182.1	427.0	304.6	2.9
	122mm 방사포탄(재고)	182.7	582.2	382.4	3.7
	122mm 총포탄 (신규)	350.8	822.9	586.9	5.6
	122mm 총포탄 (재고)	486.7	1,655.3	1,071.0	10.3
	130mm 총포탄 (재고)	3.0	35.4	19.2	0.2
	140mm 박격포탄	0.4	7.4	3.9	0.0
	152mm 총포탄 (신규)	254.3	497.1	375.7	3.6
	152mm 총포탄 (재고)	223.6	633.8	428.7	4.1
	170mm 총포탄 (재고)	30.0	127.3	78.7	0.8
	240mm 방사포 비유도탄	2,702.8	5,899.5	4,301.1	41.3
	240mm 방사포 유도탄	104.4	433.3	268.8	2.6
	60mm 박격포탄	0.1	1.4	0.8	0.0
	소계	4,521.7	11,128.4	7,825.1	75.1
대전차 유도 미사일	9M113 Konkurs	2.2	14.7	8.5	0.1
	불새-4	18.3	30.9	24.6	0.2
	불새-4 발사대	0.9	1.0	1.0	0.0
	불새-4 통제시스템	0.1	0.1	0.1	0.0
	소계	21.5	46.7	34.1	0.3
탄도 미사일	KN-23	1,078.8	1,096.4	1,087.6	10.4
합계		7,051.7	13,776.1	10,413.9	100.0

Ⅳ 종합적 논의

▪ '23.8~'25.12 기간 북한이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로 번 수익은 총 76.7억~144억 달러(평균 110.3억 달러)로 추정

- '23년 12.8억~23.4억 달러(평균 18.1억 달러) → '24년 31.9억~57.1억 달러(44.5억 달러) → '25년 32억~63.5억 달러(47.8억 달러)

〈표 6〉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액 추정 (연도별)

단위: 백만 달러

	파병	군수물자 수출			합계		
		하한	상한	평균	하한	상한	평균
2023	-	1,287.7	2,337.0	1,812.3	1,287.65	2,337.03	1,812.34
2024	96.4	3,090.4	5,608.9	4,349.6	3,186.73	5,705.22	4,445.97
2025	523.8	2,673.7	5,830.3	4,252.0	3,197.44	6,354.02	4,775.73
합계	620.1	7,051.7	13,776.1	10,413.9	7,671.8	14,396.3	11,034.0

▪ 서론(Ⅰ)에서 언급했듯이, 同 수익이 모두 북한 외화수지에 반영되지는 않음에 유의

- 수익을 전액 경화로 받을 경우, 수익만큼 외화수입 증가
- 전액 현물이나 기술로 받을 경우, 해당 현물·기술의 대북 유입이 공식수입·밀수에 포착된 경우에만 외화지출 감소에 반영
- 일부 경화, 일부 현물·기술로 받을 경우, 경화는 외화수입 증가에 반영되나, 현물·기술은 공식수입·밀수에 포착된 부분만 외화지출 감소에 반영[12]

12 임수호,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제283호 (2024), p.11 재인용.

▪ FNF에 따르면, 북한이 받은 대가 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추정한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에 불과

- 파병 · 무기수출 수익(76.7억~143.9억 달러), 확인된 대가(5.8억 달러~15억 달러)[13]
- 확인된 대가는 모두 현물, 특히 육안이나 위성으로 관찰되기 쉬운 현물에 국한되는 특징

※ 식량 0.36억~0.43억 달러(평균 0.39억 달러), 정제유 1.74억~2.11억 달러 (평균 1.93억 달러), 무기 3.67억~12.5억 달러(평균 8.09억 달러)

※ 무기는 주로 방공망 체계(Pantsir-S1)

- 따라서 파병 · 무기수출의 대가 대부분(80~96%)은 위성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민감 군사기술이나 관련 정밀부품 · 소재 등으로 받거나 향후 받을 예정일 가능성이 상당

〈표 7〉 북한 대러 파병 · 무기수출 대가 중 확인액과 미확인액

단위: 억 달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액		하한	76.7
		상한	144.0
		평균	110.3
확인된 회수액 (현물 중 일부)	식량	하한	0.4
		상한	0.4
		평균	0.4
	정제유	하한	1.7
		상한	2.1
		평균	1.9
	무기	하한	3.7
		상한	12.5
		평균	8.1
	합계	하한	5.8
		상한	15.0
		평균	10.4
미확인 회수액(혹은 회수예정액) (군사기술, 정밀부품/소재, 현금 등)		하한	61.7
		상한	138.2
		평균	99.9

13 북한이 받은 대가에 대한 FNF의 추정치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간에 한정.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FNF 추정치를 단순 투사하여(비율 1.26) 추정. Friedrich Nauman Foundation, *Unequal Partnership*, pp.19~29.

▪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될 전망

- 대북제재 중 수출제재는 외화수입 감소 및 외화보유액 고갈이 목표
-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 수익을 제외할 경우, 2025년 말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16년 말 대비 약 33.5억 달러 감소한 72.5억 달러로 추정[14]
- 반면 同 수익을 모두 포함할 경우, 52억~125.6억 달러 증가한 158억~231.6억 달러(평균 198억 달러)로 추산

〈표 8〉 대러 파병 · 군수물자 수출이 북한 외화보유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달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 수지 (A)			기타 합법 · 불법 수지	외화보유액			
	하한	상한	평균		A 제외	A 하한액 포함시(B)	A 상한액 포함시(B)	A와 B의 평균
2016년 말 외화보유액					106.0	106.0	106.0	106.0
2017				-4.4	101.6	101.6	101.6	101.6
2018				-11.7	89.9	89.9	89.9	89.9
2019				-11.3	78.6	78.6	78.6	78.6
2020				3.1	81.7	81.7	81.7	81.7
2021				3.7	85.4	85.4	85.4	85.4
2022				2.3	87.6	87.6	87.6	87.6
2023	12.9	23.4	18.1	-6.3	81.3	94.2	111.0	105.7
2024	31.9	57.1	44.5	-3.8	77.5	126.0	168.0	150.2
2025	32.0	63.5	47.8	-5.0	72.5	158.0	231.6	198.0
합계	76.7	144.0	110.3	72.5				
2016년 말 대비 외화보유액 증가분					-33.53	52.02	125.58	91.96

14 2016년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필자의 개인 추정치이며, 2017~2025년 연도별 외화수지는 기존 2017~2023년 연도별 외화수지 추정치를 기반으로 약식 추정한 수치임. 2017~2023년 추정치는 다음을 참조. 임수호,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수지 추정 Ⅰ: 합법적 거래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제262호(2024); 임수호,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제283호(2024).

참고문헌

김채운. 2026. “국정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한겨레신문〉(2.13).
김태준 · 김동현. 2024. “국정원 ‘北 러시아 파병 대가는 1인당 月 2000달러 수준’.” 〈조선일보〉(10.24).
박용한. 2025. “러 · 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KIDA 안보전략 FOCUS〉 제21호.
박희영. 2025. “국정원 ‘북한, 7~8월 러시아에 추가 파병 가능성’.” 〈노컷뉴스〉 (6.26).
유주희. 2025.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 〈서울경제〉(9.3).
이민영. 2024.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 〈서울신문〉(11.13).
이상용. 2025. “北, 파병으로 月 4380만 달러 수익…사망 위로금까지 두둑히 챙겨.” 〈데일리NK〉(5.30).
이석훈. 2025. “국정원 ‘北건설부대 5000명 러 이동 중’.” 〈뉴스핌〉(11.4).
이제훈. 2025. “김정은 ‘120일이 10년 같았다’.” 〈한겨레신문〉(12.13).
임수호. 2024.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 〈INSS 이슈브리프〉 제627호.
임수호. 20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수지 추정 Ⅰ: 합법적 거래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제262호.
임수호. 20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제283호.
하채림. 2025. “총알받이 내몰린 1만 5천명.” 〈연합뉴스〉(10.4).
장슬기. 2024. “해외서 5년 일한 대가가 고작…‘현대판 노예’ 北 노동자들.” 〈데일리NK〉(6.10).
정승임. 2024. “‘총알받이’ 러시아 용병 월급 276만원.” 〈한국일보〉(10.23).

Friedrich Nauman Foundation. 2025. *Unequal Partnership: North Korea's Uneven Bargain with Russia* (September).
Hodunova, Kateryna. 2025. “North Korea halves shell shipments to Russia as its own stockpiles run low, Ukraine's intelligence says.” *The Kyiv Independent* (November 15).
Kozatskyi, Sania. 2025. “South Korean Intelligence: North Korea Sends Another 5,000 Troops to Russia.” *Militarnyi* (November 5).
Moroziuk, Polina. 2026. “Nearly 11,000 North Korean troops stationed in Russia's Kursk Oblast at start of 2026, media reports.” *The Kyiv Independent* (February 13).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2025.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29).
Open Source Center. 2025. *Brothers in Arms: Estimating North Korean Munitions Deliveries To Russia* (April 15).

Abstract

The Economic Effects of North Korea's Troop Deployment and Military Supply Exports to Russia

Lim Soo-H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article estimates the amount of foreign currency earned by North Korea from its troop deployments and military supplies exports to Russia between August 2023 and December 2025. The estimate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foreign currency earned from the four troop deployments is estimated at $620 million. Second, the exports of various artillery pieces, shells, and guided and ballistic missiles are estimated at $7.05 billion to $13.78 billion (average $10.4 billion).

In summary, the revenue from troop deployments supplies exports to Russia during this period is estimated at $7.67 billion to $14.4 billion (average $11.03 billion). Of this, only $580 million to $1.5 billion, or approximately 4.0% to 19.6% (average 9.4%), has been confirmed to have been recovered in kind by North Korea.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ajority (80–96%) of the payments for troop deployment and military supplies exports have been, or will be, received in the form of sensitive military technology or related precision parts and material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by satellite.

If North Korea were to recover all payments for troop deployment and military supplies exports, the key economic effects of sanctions—the reduction in foreign currency earnings—would be nullified. Excluding these troop deployment and export revenues,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reserves by the end of 2025 are estimated to be $7.25 billion, a decrease of approximately $3.35 billion compared to the end of 2016. Including all these revenues, however, the figure is estimated to be $15.8–$23.16 billion (an average of $19.8 billion), an increase of $5.2–$12.56 billion.

Keywords: troop deployment, military supplies exports, balance of payment, economic effects of sanction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www.inss.re.k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March 2026
No. 374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02-6191-1000 02-6191-1111 www.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